

아슬란이 오신다

글: 루이스 팔라우(Luis Palau)

올 성탄절 20세기 폭스사는 C. S. 루이스 명작 가운데 하나인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를 개봉할 예정이다. 이 힘있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의 여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내포하는 위험·놀랄만한 일·계시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총 일곱 권으로 이루어진 C. 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가운데 제 3 권이다. 전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는 1억 권이 넘게 판매되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주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아이들은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비버가 네 명의 페벤시 남매를 주시하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하는 부분의 대사를 좋아한다. "아슬란이 오신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아슬란 즉 루이스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정 전세계에 사는 관객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수백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면, 실제로 복음 전파에 있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오고 계신다. 아르헨티나 태생인 필자는 18세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20대 중반에 포틀랜드로 이사 왔다. 이곳 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림자를 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새로운 도구와 자료가 사용되는 장면을 볼 때면 나는 늘 설렌다. 장편 서사시와도 같은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둔 시점이라 설렘이 더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가 힘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씀이 전하는 구원의 이야기이며, 또 이 이야기에 내재된 힘은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성경의 희망의 메시지를 문화에 심는데 중심이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필자는 이에 더해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삼 년 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다는 사실이 과연 우연일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간단명료하고도 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였다. 또 염두에 둘 것은 그의 이야기들이 평소 '종교적'이라 여길 만한 소재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상적인 것들이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이 직면하는 고난, 장애, 좌절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필자는 C. S. 루이스의 이야기로 회중 및 청중에게 다가가는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로 청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사항들이 있다.

1. 그것은 인생의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하나의 원대한 모험이며 인생 전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서사시와도 같은 이야기다.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순간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하는 순간도 모두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 영혼의 여정과 같이 이 젊은이들은 온갖 종류의 난제와 씨름

하게 된다.

이야기 속 아슬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환란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진리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겠는가! 이는 고린도후서 4장 8-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2. 악은 실재(實在)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빈번히 악의 존재를 망각한다. C. S. 루이스는 사탄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악의 실재를 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실로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악의 실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언급된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회중들은 인생의 난제와 장애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당신에게 죄악이 실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격려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하시며,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다.

3. 거대한 희망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결코 쉽지 않지만, 이야기 속 인물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난폭한 물결을 견뎌낼 힘을 가지고 있다.

새벽 출정호 선원들이 이 인생 대전환의 여행에 나서면서 그들의 용기와 신념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슬란은 구원하신다. 물론 용기와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최종적인 해결의 열쇠는 바로 아슬란이다. 우리는 이를 즉 구원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은 이 사실을 명백히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가올 한 해 동안 친구들, 회중들과 이 나니아 이야기를 나눌 계획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길 생각이다. 당신도 그러하길 희망한다.